

2025년 AI·디지털 기반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선정작 저작권 보유현황

NO	분야	사업자명	방송프로그램명	저작권 보유율	컨셉 및 기획의도
1	AI·디지털 공동제작	KBFD TV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	100%	2025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다. 80년 전,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이 독립을 이루었듯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 전파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주용한 거점 이었던 하와이에서 최초로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 코스'를 조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8.15k 하와이 독립의 길 을 걷다'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본 다큐멘터리는 이 걷기 대회의 준비 과정과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하와 이 한인 이민 1세대의 독립운동을 조명하고, AI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보여줌으로써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자 한다.
2		YTV AMERICA	미국에 부는 한국식 '집밥' 열풍	100%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식 '집밥'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는 홈쿡에 대한 관 심이 늘어났고, 이것은 K-푸드의 폭발적인 인기와 결합해 집밥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집밥은 이민 1세대와 차세대를 이어주는 세대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한인 가정에서 타인종 가정으로 한식을 전하는 음식 문화 전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불고 있는 집밥 열풍 의 현장을 취재하여, 집밥에서 파생되는 한식의 변화도 알아본다.
3	현지맞춤형 방송콘텐츠	KTV	200일의 기록 - 경계선 장애 아이들, AI로 날다	100%	경계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AI 기반 혁신 교육을 통해 자신의 벽을 서서히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담아낸다. 이 아이들에게 AI는 학습에서 단순히 정답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트리거' 역할을 한다. 배움의 문이 닫힌 듯 했던 아이들에게 허락된 새로 운 출구. 슬한 좌절 끝에 경계를 넘어설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 과연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4		KBN	AI 가상현실을 이용한 '미주한인이민사'	100%	1903년 사탕수수 노동자를 실은 배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척박한 이민 역사는 시작됐다. 한세기를 넘으며 하와이 노동자 후손들과 이후 이민자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힘찬 역사를 미국에서 써내려가고 있 다. AI 가상현실을 이용한 '미주 한인 이민사'는 한인 이민 122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다민족 사회에서 살아갈 후세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전한다. 지난 시간을 넘어 미래로 넘어가야 할 때다. 다시 시작 이고 도전은 계속된다. 자유와 축복의 땅에서 또 다른 한 세기를 꿈꾼다.
5		LA우리방송	동요로 떠나는 시간여행, <푸른 하늘 은하수>	100%	한국 동요의 변천사를 따라가며 시대별 대표 동요와 그 속에 담긴 감성을 조명한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한인 청취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인 사회에서 동요가 가진 의미와 한국 동요를 통한 한글 교육 및 정체성 형성을 다룬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오래된 동요 음원 복원, AI 맞춤형 동요 제작, 해외 청취자를 위한 번 역 콘텐츠 등을 제공해 몰입도를 높인다.
6		미주복음방송	이지선의 “한 칸 너머의 가족”	100%	미국 내 장애 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과 문화적 이해 부족, 정보 접근의 어려 움으로 인해 많은 한인 장애 가정의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 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돌 가 족은 교육, 치료, 사회 적응까지 대부분의 부담을 1세 부모가 감당하고 있어 복합적 문제가 얹혀있는 사각지 대다. 본 방송을 통해 한인 장애 가정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지금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한지 구체적 사례와 데 이터로 설득력있게 보여주며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간다.
7		Happy World TV	장(醬) 마스터, 퓨전 챌린지 - 글로벌 맛으로 뉴질랜드 접수하다!	100%	뉴질랜드는 270여 가지의 문화를 가진 다양한 민족이 영어를 포함해 165개의 언어로 소통하며 살고 있는 세 계에서 다민족 비율이 높은 국가의 하나이다. 이러한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자 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